

광주문화재단 수장 공백 불가피

대표이사 2차 공모도 '적격자 없음'...임추위, 3차 공모 추진 방침 청문회 일정 감안 빨라야 내년 2월...일각 '내 사람 심기' 꿈수 의혹도

광주문화재단 신입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2차 공모도 1차에 이어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대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차 공모를 진행해 새 후보자가 결정돼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2월 전후로 신입 대표가 취임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로서는 대표공석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황종년 대표는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광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5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재공고 면접실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공고했다.

임추위는 지난 4일 서류심사 합격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했다.

임추위는 추후 3차 공모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공모 절차가 진행될지 알 수 없다.

지난 1차 공모 당시에는 면접 결과 재단 홈페이지에 '적격자 없음'이 발표된 다음날 바로 2차 재공고가 나온 바 있다.

향후 대표공백이 장기화한다면 내년 사업 수행과 인사 등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역 문화 정책 등을 컨트롤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재단 대표의 공백은 문화현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문화재단은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립적인 기관의 성격을 가지는데 대표 선임이 늦어지면 사업이나 인사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장기 공백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서둘러 공모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대표직 공석이 장기화되면 대행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제4대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에도 2차 공모까지 무산되면서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자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임을 감안하면, 대행체제는 시가 문화정책이나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1차, 2차 공모가 무산되면서 3차 공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임추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2명을 비롯해 시의회 3명, 광주시 2명을 추천했다. 임추위는 서류 심사를 비롯해 면접심사를 진행하며 이후 시의회 인사 청문, 시장의 임명 절차에 따라 신입 대표가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 이번 1차 2차 공모처럼 면접이 완료된 직후 '적격자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잇따른 공모 무산이 흑역사 '내 사람 심기'를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도 있다. 사실상 후보자를 내정해두고 2회에 걸쳐 공모를 무산함으로써 향후 캠프 관련 인사나 특정 인사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문화계 A씨는 "1차, 2차까지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청문회 실시 등까지 고려하면 상당기간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화계 수장은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문화 마인드와 실행력, 전문성, 소통능력 등을 갖춘 적임자가 선임돼야 문화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려인 극작가 김해운을 만나다

이달까지 고려인문화관서 특별전...희곡집·사진 등 전시



김해운은 블라디보스토크의 고려극장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극작가다. 배우, 연출가로도 활동했으며 그가 쓴 희곡 8편은 국가지정물 13호에 등재됐다.

희곡 '동북선' (1935년)은 일제의 한반도 수탈과 학살을 고발한 전형적인 반일, 항일 의식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연극으로 만들어져 1935년 초연돼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같은 해 7월 3일 고려사범대학교 제1회 졸업식에서도 특별 공연됐다.

고려인 극작가 김해운 특별전이 오는 12월 말까지 고려인문화관 곁에서 진행된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다양한 자료들을 만난다. 음악회극 '농민유희'의 한 장면에 출연해 팽과리를 치며 춤을 추는 김해운과 송 따찌야나 부부의 사진을 비롯해 희곡 '기후조', '무죄인들의 노래', '생활', '향촌', '정화와 흥련' 등의 작품을 만난다. 또한 신

한촌구락부 앞에서 포즈를 취한 초기 고려극장 단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외에도 연극 무대에서 열연하는 김해운의 1950년대 모습 등도 볼 수 있다.

한편 김해운은 1932년 한민족 최초의 우리말 전문연극극장인 고려극장(블라디보스토크)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1939년에는 중앙아시아 타슈켄트 조선극장 설립을 주도했다.

김병학 고려인문화관 관장은 "김해운은 블라디보스토크의 고려극장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인 중 한 명으로 꼽힐 만큼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며 "이처럼 먼 타지에서 우리말을 토대로 작품을 쓰고 우리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문화예술위의 2023년 한국작가문인선양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0일에는 호남대 랄랄라 극장에서 세미나 '김해운을 읽다'가 진행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연말 무도회 온 듯 '클래식 앙상블'

K클래식앙상블 정기연주회...브람스·피아졸라 등 곡 감상



K클래식앙상블 제1회 정기연주회(창단연주회) 공연 장면. (K클래식앙상블 제공)

지역에서 클래식을 연주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초 창단한 앙상블이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선보인다.

K클래식앙상블(회장 고선희)이 제2회 정기연주회 '건반무도회'를 오는 10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공연은 낭만음악의 거장 브람스를 비롯해 현대음악의 한 축을 맡는 울스 등의 곡을 연주한다. 특히 '춤곡'을 연주해 연말연시의 무도회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브람스의 '헝가리안 춤곡 1번'은 고선희, 이민진,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왈츠'는 최원영, 송지혜가 연주한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곡 17번'은 정지연, 백승유가 들려주며 이지영, 설효선 등은 리스트의 '파우스트 왈츠'로 관객들을 만난다.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도 감상할 수 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즐기는 누에보 탱고(Nuevo Tango, 새로운 탱고)를 상징하는 곡으로 평가받을 만큼 60~70년대 고전 탱고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선사한 작품이다. 조플린의 '레그 랩소디' 등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해설은 광주대 예대를 졸업하고 전문연주자 및 공연기획,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영이 맡는다.

한편 K클래식앙상블은 전남대, 조선대, 호신대 등을 졸업한 지역 출신의 음악가들이 모여 만든 앙상블이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대, 명지대 등에서 수학한 이지영이 대표.

전석 무료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에스24 독자가 뽑은 올해 책

'도둑맞은 집중력'

독자들이 뽑은 에스24 올해의 책으로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 선정됐다.

6일 에스24에 따르면 283개 출판사의 추천을 받은 48종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투표가 진행됐으며 '도둑맞은 집중력'은 전체 89만 166표 가운데 3만4845표(6.1%)를 얻어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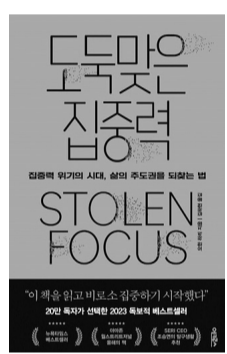
요한 하리는 "내가 이뤘던 성취 중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을 떠올려 보라"며 "그때의 그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이제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이노의 가르침'은 3만3585표(5.9%)를 받아 2위를, '푸아오, 매일매일 행복해'는 3만1539표(5.5%)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모두 24권이 '2023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인문 분야 도서가 7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설·시·희곡(6종), 에세이(3종)가 그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에스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아트·음악으로 수려한 '무등산'

타악그룹 얼쑤, 12일 수완문화체육센터서 융복합쇼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의 풍광이 음악과 미디어아트로 펼쳐진다.

타악그룹 얼쑤가 무등산의 사계절을 초점화한 융복합 미디어아트쇼 '무등의 산'을 선보인다.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공연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자원 '무등산'의 사계절을 모티브로 일렉트로닉 음악, 미디어아트, 전통예술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예술이다.

일렉트로닉 음악을 기반으로 장구와 양금의 사운드가 주축이 되는 '피어나는 새싹'이 막을 연다. 이어지는 '햇살아래 숲'은 팽과리, 징, 태평소 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달'에 소원을 빌며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풍년을 기원하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홀날리는 잎새'도 레퍼토리에 있다. '소멸, 그리고 눈꽃'은 겨울날 설산이 된 무



타악그룹 얼쑤가 장구를 연주하는 모습. (얼쑤 제공)

등의 모습을 핸드팬, 디저리두(호주식 금관악기) 등으로 연주하는 곡이다.

한편 얼쑤는 타악으로 집단적인 신명을 만들고 공동체와 즐거움을 나누는 공연 단체다. 현재 풍물굿을 모태로 남녀노소,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무대 작품들을 만들고 실험하고 있다.

무료 공연. 선착순 입장. /*최류빈 기자 rubi@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
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